



대구지역본부



대구지역본부

대구지사	달구벌 연금이
서대구지사	서대구 연금이 봉사단
동대구지사	동그라미
대구수성지사	대구수성지사 연금이 봉사단
대구달성지사	희망 나누미
경주지사	새별 가꿈회
포항지사	나누리 봉사단
안동지사	함사모
영주지사	참사랑
문경지사	문경연금이봉사단
구미지사	까치
대구콜센터	다솜누리연금이



대구지역본부

달구벌 연금이 _ 대구지사

주요활동

- 독거노인과 조손가정 후원 및 도시락 배달 등 봉사활동
- 자매결연 마을 물품지원 및 농촌 봉사활동
-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 재난재해 복구 활동 등



서대구 연금이 봉사단 _ 서대구지사

주요활동

-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 결손가정 어린이 후원
- 사회복지시설 후원 및 봉사활동
- 1사1촌 농촌 사랑 운동 등



어르신들! '달구벌 연금이' 왔습니다.

대구지사 '달구벌 연금이' 봉사단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 사랑의 연탄 배달 및 경로 위안잔치, 자매결연 마을을 통한 농촌사랑 운동, 재난지역의 긴급 구호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봉사단은 2009년부터 인근 「사회복지법인가정복지회」와 협력하여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에게 매일 사랑의 도시락을 배달해 주고 있으며, 2008년 12월에는 대구 동구에 거주하는 조손가정과 홀몸 어르신 가정 22가구에 230만원 상당의 연탄을 지원하였다. 봉사단원 20여 명이 골목길에 한 줄로 서서 사랑의 연탄을 나르고, 집 안 청소도 하면서 '연탄으로 사랑의 불씨를 나눠요' 행사를 한 것이다. 가정의 달인 5월에는 2008년도에 이어 2009년도에도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과 조손가정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 위안잔치'를 열어 점심식사를 대접하였다.

이 밖에도 정서적 고독감이 많은 장애인 독거노인의 집 안 청소와 말동무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주민과 훈훈한 정을 나누고 있다.

달구벌 연금이 봉사단은 2005년 6월부터 성주군 수륜면 송계2리와 농촌사랑 1사 1촌 자매결연을 하고 명절에는 생활필수품 전달, 농번기에는 일손 돕기와 마을 주변 및 회관 청소를 하고 있다.

특히, 2008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봉화군 춘양면 석현리를 방문하여 피해지역 계곡과 과수원에 쌓인 토사,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구호활동을 벌여 지역사회의 사회봉사 일꾼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따뜻한 봄빛과 함께하는 어르신과의 동행

2007년 5월 서대구지사 '서대구 연금이 봉사단'은 「보은노인전문요양원」이 주최한 '할아버지 할머니 행복나들이' 행사를 후원하고 도우미로 나서 어르신들의 봄나들이를 도왔다. 모시게 된 어르신들은 노인성 질환으로 말미암아 신체적인 능력이 저하되어 일상적인 생활이 힘든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오랜만에 봄나들이를 하는 어르신들은 휠체어에 앉아서도 내내 밝은 표정으로 행복해 하셨고 동물원의 봄꽃과 햇별을 만끽하셨다. 시설 생활로 답답했던 어르신들의 마음을 환하게 열어 드린 소중한 시간이었다. 어르신들을 모신 봉사단원들은 어르신들을 도왔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되돌아보고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한다.

이처럼 서대구지사 서대구 연금이 봉사단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을 기반으로 노인 시설, 장애아동 시설, 요보호아동 시설 등을 후원하고 1사 1촌 자매마을과의 지속적인 도농교류, 무료 배식 행사, 도시락 배달 등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소외된 다양한 계층에 대해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서대구지사는 지사 내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직원들이 요보호 계층의 욕구를 파악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대구 연금이 봉사단은 지역 사회의 소외 계층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주요활동

- 종합사회복지관 후원 및 봉사활동
-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함께 해요! 이웃 사랑~, 청소년 사랑~

동대구지사 '동그라미' 봉사단은 2007년 3월부터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WITH 동대구-아카데미'(Start 운동)를 개설하여 관내 불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 서비스 및 후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Start 운동을 전개하게 된 배경은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의 지역사회 보호사업 중 아동교육과 복지부문을 후원하여 불우 청소년의 생활 안정과 삶의 의지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공단 간의 연대감을 조성하기 위함이었다.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은 아동, 장애인, 어르신, 저소득 가정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곳으로 현재 300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관내 최고 시설의 사회복지관이기도 하다.

동그라미 봉사단은 사랑과 나눔의 실천으로 더욱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내 저소득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도 후원하고 있으며 밀반찬 음식 나르기 등 봉사활동도 계속해 오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 어르신을 위한 노인대학 강좌를 해마다 2회씩 실시하였다.

동그라미 봉사단은 2007년 12월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우수봉사단체 감사패를 수상하기도 하였는데 밝은 미래를 위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우리의 이웃 사랑, 청소년 사랑'을 앞으로도 꼭 이어갈 것이다.



대구지역본부

대구수성지사 연금이 봉사단 _ 대구수성지사

주요활동

- 장애인복지관 후원 및 봉사활동
-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 저소득 연금수급자 후원
- 1사촌 농촌 사랑 운동 등



희망 나누미 _ 대구달성지사

주요활동

- 급식 및 도시락 배달 봉사
-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 사회복지시설 정기 후원
- 1사촌 농촌 사랑 운동 등



장애인과 함께하는 행복한 나눔

‘대구수성지사 연금이 봉사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2009년 3월, 「경산시자원봉사센터」와 ‘노블리스 오블리주’ 기관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동 센터의 주선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경산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지사 사회공헌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봉사단은 매월 넷째 주 목요일을 사회공헌의 날로 지정하여 「경산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정기적으로 배식, 설거지, 청소 등 노력봉사를 하고 있으며 후원금과 간식 등 경제적·물질적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자주 마련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고 있다.

봉사단은 업무로 인해 장애인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항상 아쉬움으로 남지만, 변치 않는 사랑으로 장애인과 늘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봉사단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어르신들, 식사 드세요~

대구달성지사 봉사단 ‘희망 나누미’는 대구시 남구 이천동의 「희망의 집」과 2005년 9월 자원봉사 협약식을 맺고 매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희망의 집」은 남구청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급식사업소로 가정이 어려운 어르신들과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 및 도시락 배달 등을 하고 있으며, 5명의 직원으로는 일손이 부족해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이다.

대구달성지사 희망 나누미는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자원봉사의 날로 정해 급식, 설거지 및 바닥 청소를 도맡아 하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시설 입구의 낡은 천막을 새것으로 교체하고 어르신들 온천 나들이 행사에 비용을 지원해주어 시설장으로부터 감사의 말을 전해 들었다.

희망 나누미 봉사단원들은 “비록 서툰 솜씨로 몸은 고달프지만, 끝나면 항상 가슴 뿌듯함을 느낀다.”라며 바쁜 업무 속에서도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봉사와 나눔으로 함께 했다는 사실에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고 입을 모은다.

주요활동

- 사회복지시설 후원 및 봉사 활동
-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 1사1촌 농촌 사랑 운동 등



一石三鳥의 배품, 무료 급식봉사

경주시사 봉사단 '새별 가꿈회'는 2005년 7월 농촌사랑 1사 1촌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지역 내 아동복지관 및 노인복지관과 결연을 하여 후원하고 있으며 무료급식 봉사활동, 환경보전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설과 추석 명절에는 조손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행복 나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새별 가꿈회가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무료급식 봉사는 2006년 5월 경북 영천시 「야사사회종합복지관」과 결연 하고서부터 시작되었다.

무료급식은 지역 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월 1회 이상 급식 봉사에 참여하여 음식조리에서부터 배식, 설거지까지 당일 어르신들의 점심을 책임지고 있다. 매번 4~5명의 봉사단원이 참여하여 200인 분 정도의 음식을 조리한다. 서둘지만 정성어린 음식 조리가 끝나면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식판에 배식하고, 설거지 등 뒷정리를 하고 나면 모든 봉사활동이 끝난다. 어르신들이 "젊은이들 고맙네. 어디서 이렇게 오셨는가?" 하고 물어보시면 "국민연금에서 왔어요."라고 말할 때, 연금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무료급식 봉사활동은 다른 봉사활동과 마찬가지로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게 한다. 게다가 한 가지를 더 얻게 한다. 내 부모님께서는 효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뒤돌아보게 하는 것이다. 배품으로써 깨닫고, 배우고, 더 큰 효심을 갖게 되는 일석삼조의 봉사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대구지역본부

나누리 봉사단 _ 포항지사

주요활동

- 장애인시설 후원 및 봉사 활동
-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 개발도상국 어린이 지원 사업 정기후원



함사모(함께 사랑하는 모임) _ 안동지사

주요활동

- 1사산 환경보전활동
- 사회복지시설 후원
- 소년소녀 가장 후원
- 저소득 연금수급자 후원



독수리 5형제에게 날개를

포항지사 '나누리 봉사단'은 2005년 9월부터 송라면 대전리에 소재하는 중증 장애인 복지시설인 「베들레헴공동체」와 인연을 맺고 현재까지 꾸준한 후원 및 자원봉사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이 곳은 성대현, 조영희 부부가 개인재산을 털어 중증장애인 3명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독수리 5형제로 불리는 5명의 중증장애인을 가족처럼 돌보고 있는 곳으로 직원들이 공동 모금한 기금으로 매분기 후원금 전달과 함께 4~5명의 봉사단원이 방문하여 이들이 바깥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위해 실내청소 및 제초작업 등을 실시해 왔다.

비록 소액의 후원금과 짧은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나날이 밝아지는 독수리 5형제의 얼굴에서 우리 포항지사 직원들은 그들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맛보고 있다.

또한 나누리 봉사단은 다각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2007년 2월부터는 개발도상국 어린이를 지원하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직원 1인당 1004원씩을 후원하는 '천사(1004) 운동'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저소득 가입자 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2009년 1월에 1명의 연금수급자가 탄생했으며 2009년 9월 현재 3명의 가입자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회공헌기금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좀 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힘을 계획이다.

함께 가꾸고 함께 누리요, 우리강산!!

복지사회의 주역을 자임하는 국민연금, 노후의 삶을 안정되고 풍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연금이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은 자연이라 하겠다.

안동지사 전 직원이 참여하는 봉사단인 '함사모'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맡은 업무로 바쁜 중에도 지역주민이 많이 찾는 인근 산을 분기마다 찾는다. 비에 씻긴 길을 정비하고 등산객이 버린 휴지 등 오물을 수거하여 환경을 보호 보전하고, 식목 시기에는 나무를 심어 푸른 산 가꾸기에도 일조하고 있다.

갈라산, 천등산은 안동 인근에 위치하여 많은 안동시민이 일상적으로 찾는 휴식과 운동 공간이다. 처음엔 일회성이고 형식적으로 하는 행사거나 했던 시민들도 '우리강산을 함께 가꾸고 함께 누리요'를 기치로 홍보용 현수막을 걸고 우리 강산을 푸르게 가꾸는데 열과 성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고, 수고한다는 인사를 하고 함께 참여해주기까지 하였다. 비록 소수의 인원이고 바쁜 업무에 시간을 내기도 어려웠지만,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의 기쁨과 환경보호의 보람으로 오히려 힘을 얻는 기회가 되고 있다.

직원들은 "힘들지만 보람 있는 일이다.", "이런 시간을 더욱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며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으며 시원한 산 공기를 깊이 들이마신다.

주요활동

- 독거노인, 장애인 등 도시락 배달
- 사회복지시설 등 후원
-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 무섬마을 문화재지킴이 활동
- 사촌 농촌 사랑 운동 등



장애우와 자매마을에 펼치는 참사랑

영주시사 '참사랑' 봉사단은 2006년 4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재단법인 천주교안동교구유지재단 하망동성당 「만남의 집」을 통하여 영주시 독거노인 및 기초수급자 17가구에 매주 목요일 도시락 배달을 하고 틈틈이 쌀을 기부하는 등 불우이웃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해왔다.

2009년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대상자를 찾던 참사랑 봉사단은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부터 영주시 면 지역 오지마을에 거주하는 장애우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위한 도움이 필요로 한다는 소식을 듣고 8월부터 매월 2회 목요일마다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다.

도시락 배달에 실천한 참사랑 봉사단원은 사회공헌활동을 직접 실천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뭔가가 가슴을 따뜻하게 한다며 좀 더 많은 장애우를 돕고 싶다고 전하기도 한다.

한편 참사랑 봉사단은 2005년 12월에 영주시 단산면 옥대2리와 농촌사랑 자매결연을 하고, 매년 농번기에 농촌 일손 돕기로 포도밭 비닐 씌우기, 가지치기, 폐비닐 수거 등 농촌 어르신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포도 등 마을의 특산품을 팔아주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밖에도 2009년 정월 대보름에는 자매결연 마을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마치고 마을주민들과 윷놀이를 함께하면서 훈훈한 정을 나누기도 했다.



대구지역본부

문경연금이봉사단 _ 문경지사

주요활동

- 독거노인 가정 청소, 목욕 및 생필품 지원
- 소년소녀가장 후원
- 사회복지시설 후원
- 결식아동 밑반찬 배달
- 거동불능 장애인 목욕봉사 등



까치 _ 구미지사

주요활동

- 장애어린이 재활 봉사활동(축구교실)
- 사회복지시설 후원 및 봉사활동
-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고맙구만...!” 땀방울을 말리는 말 한 마디

인기척을 들은 할아버지는 급히 방문을 열고 내다보신다. 검버섯 가득한 얼굴의 골 깊은 주름이 한층 더 깊이 파이는 웃음을 환하게 웃으시며 반가이 맞아 주신다. 이십 수년 전부터 중풍으로 거동이 어려워 하루의 대부분을 방과 마루만 오가셨을 테니 얼마나 사람이 그리우셨을까 일별만 해도 짐작이 간다.

문경지사 '문경연금이봉사단', 직원24명의 작은 지사 봉사단원들은 찜하게 울리는 가슴을 미소로 감추며 할아버지를 마루로 모신 다음 열린 소매를 건어붙이고 안방부터 마루로, 마당으로 뒤꼍까지 대청소를 실시하였다.

걸레를 깨끗이 빨아 곳곳을 훑치고 치우고, 한가득 모인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였다. 날씨가 추우니 들어가 계시라는 권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루에 앉아서 봉사단이 일하는 모습을 연신 미소로 치하하시던 할아버지는 어디서 왔는지 자꾸 물으신다. “국민연금요” 대답을 해도 청력이 떨어진 탓도 있겠지만 워낙 고령이어서 국민연금이 낯선 명칭이었나 보다. “고맙구만 참말로.” 일을 마치고 해가 뉘엿뉘엿해지는 시간, 돌아가는 봉사단원들을 향해 골목길 끝까지 바라보며 손을 흔드신다.

문경연금이봉사단은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2006년부터 매월 거동이 어려운 독거노인을 찾아 직원의 정성을 모은 성금으로 마련한 생활필수품을 전달하고 집 안팎 대청소며 목욕보조까지 하여 왔다. 봉사단이 찾아가는 노인들은 생활이 어렵고 외로우시며 거동이 불편한 분을 위주로 하였다. 마치 자녀처럼, 아니 찾아주지 않는 자녀보다 더 반갑게 맞아주시는 노인들을 보며, 봉사자들은 '효자연금'이라는 말을 떠올린다고 한다. 미래 복지사회에서는 국민연금이 효자이듯, 직원들은 오늘도 미력하나마 또 다른 하나의 효자이고자 땀을 흘린다. “고맙구만!” 할아버지의 말 한 마디로 흐르는 땀방울을 말리며.

장애아동 단한 마음, 축구로 열어요

구미지사 '까치' 봉사단은 그간의 성금기부 중심의 사회공헌활동에서 자원봉사 등 보다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9년 3월부터 11월 말까지 관내 「구미시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어린이축구교실'을 통해 정신지체장애(자폐증)어린이 재활 봉사활동에 매주 화요일마다 참여하기로 하였다.

「구미시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에게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상담,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회복과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로 자활자립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종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이다.

까치 봉사단은 지난 여름의 그 무덥던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애어린이들과 축구교실을 통해 호흡을 맞추었다. 참여 봉사단원들은 장애어린이들이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도록 아빠처럼, 엄마처럼 격려하면서 함께 뛰고 굴렀다. 그렇게 자폐어린이들과의 언어와 의사소통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인 결과, 불안정했던 어린이들의 기분과 정서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고 이를 지켜 본 봉사단원들은 감동의 눈물을 참지 못하였다.

까치 봉사단 단원들은 모두 이렇게 다짐한다. 우리 공단의 슬로건처럼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위하여 열린 마음으로 장애인과 함께하고 가교역할을 다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에 기여 하겠다고...

주요활동

- 노인요양시설 후원 및 봉사활동
- 저소득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



어르신 생신잔치, 주름진 얼굴엔 웃음이 피어나고

대구콜센터 '다솜누리연금이' 봉사단은 2008년 3월부터 대구 동구 진인동의 「붓다의 집」(감천복지재단)을 매월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월별 행사계획에 따라 꾸준히 노력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붓다의 집」은 가정 내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치매나 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균형 잡힌 식단, 전문적인 케어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80명의 노인이 여생을 편히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노인요양시설이다.

다솜누리연금이 봉사단은 월별 행사 중 어르신 생신잔치에 참여하여 생신잔치 행사준비를 돕고 노래도 함께 부르며 축하해 드리고 있다. 그리고 생필품, 간식 등의 경제적 후원과 어르신 배식 도와드리기, 말벗 되어 드리기 등 생활정서 지원 활동도 함께하고 있다. 작년 연말에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양말, 내복 등을 후원하였다.

봉사단원들은 시설 어르신의 주름진 얼굴에 피어나는 웃음을 보며 마음속에 행복감과 나눔의 기쁨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